

⑩ 조선시대의 전함

해상의 탱크, 거북선(龜船)

글 | 박재광 _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umma621@hanafos.com



이순신의 일생을 그린 십경도에 나타난 거북선 건조장면(현충사 소장)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거북선이란 과연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 묻는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6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한 민족의 성웅 이순신이 발명한 배, 한민족의 지혜의 정수가 담긴 세계 최초의 철갑선, 입으로는 연막을 뿜고 등에는 철갑과 송곳을 썩였으며, 옆구리에서는 대포를 마구 쏘 대는 천하무적의 군함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미지의 거북선은 예전에는 지폐와 동전, 그림 등에 그 모습을 자주 드러내 보였고, 지금도 관광지의 기념품, 박물관의 축소 모형, 해군사관학교 등의 실물 크기 복원품 등은 이러한 이미지를 오늘날까지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학계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된 거북선의 원형에 관하여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사료를 해석하여 나름대로 거북선의 설계도를 제시해 오고 있지만, 거북선에 관한 의문 모두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 것은 이제껏 하나도 없었다. 몇 년 전 KBS TV에서 방송된 '역사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루었지만, 그것 역시 특정 연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다.

최근 들어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 20대 과제 중 하나인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북선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순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북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413년 태종 때 거북선 처음 등장

거북선이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 초기였다. 1413년(태종 13)에 “국왕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왜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계사)는 구절이다. 또 1415년(태종 15년)에는 좌대언 탁신이 올린 상소 중 병비에 대한 내용에 “거북선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히 결승의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7월 을미)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 초기에 거북선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것 같으나 어떤 형태와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다.

그 후 180여 년간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이순신이 쓴 임진왜란 당시의 일기인 '난중일기' 2월 8일 기사에 “거북선에 사용할 듯베 29필을 받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후 3월 27일에는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현자포를 쏘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이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현충사 소장)

순신이 해전에서 승리한 후 올린 장계 등에도 거북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신이 일찍이 애적의 난리가 있을 것을 걱정하고,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의 머리를 붙여 아가리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 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비록 적선 수백 척 속에서도 뚫고 들어가 대포를 쏘게 되었는데 이번 길에 돌격장이 그것을 타고 나왔습니다. . . . 먼저 거북배로 하여금 적의 증류선 아래로 곧 바로 다다르게 하여 용의 아가리에서 현자대포알과 향자대포알을 치켜 놓았습니다. 또 천자대포와 지자대포에서 대장군전을 놓아 적선을 깨어 부수었습니다(1592년 6월 14일 당포해전 장계).

한편 다른 문헌기록에 보면 당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거북선의 유형에 속하는 배가 따로 구상된 예가 있다. 이미 이순신이 용맹을 떨치고 있던 1592년에 세자를 호종했던 이덕홍이 왕세자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귀갑선의 전법과 귀갑선의 이로움을 아뢰고 있다. 그는 귀갑선의 체제를 “등에 창검을 붙이고 머리에는 쇠뇌를 매복시키고 중간부분에 판옥을 지어 사수를 그 속에 두고...”라고 하였고, 또 “뜰건대 호남의 장수들이 이것을 써서 적선을 크게 무찌르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듬해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귀갑선의 구상도를 첨부하여 제작을 건의하고 있다(「간재집」 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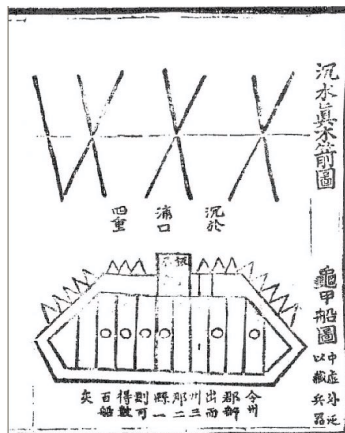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이 건조한 전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된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거북선은 일반적인 외부의 형태와 전투력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치수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다. 따라

서 태종 때의 거북선과 이순신이 말한 거북선과의 관계도 확실히 알 수 없고, 단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이순신의 고안에 의해서 군관 나대용 등이 실제로 건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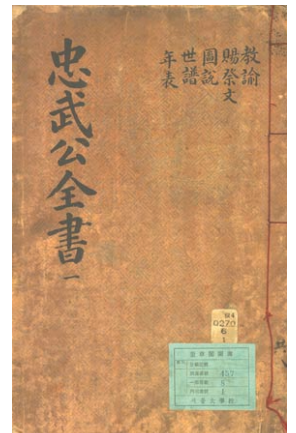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돌격전선으로서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전란 후에는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여 용머리는 거북머리로 되고, 치수도 일반적으로 장대해지는 등 차차 크게 건조되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200여 년이 지난 1795년(정조 19년)에 정조의 명에 따라 이순신과 거북선에 관한 자료를 총망라하여 수집·정리하여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및 ‘통제영 거북선’의 그림과 함께 건조에 필요한 부분적인 치수가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다. 거북선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상세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몇 가지 거북선의 외형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림 자료가 남아 있다. 먼저 이순신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북선 그림 2장이다. 이 거북선은 ‘이충무공전서’의 거북선과는 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판옥선처럼 장대(將臺)가 존재하고, 용머리가 없는 것도 있어 일부 연구자들은 이 그림을 근거로 거북선의 머리가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10여 종이 남아 있는 조선 후기 수군조련도에 묘사된 거북선이다. 흔히 예전에 이순신의 학익진 병풍으로 알려진 그림인데, 사실은 첨자진의 진형을 짜고 조선 삼도 수군이 훈련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상당수의 장대가 있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다. 이는 적어도 19세기 이후에 이러한 거북선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한 일간지에 ‘A Pictorial Treasury of the Marine Museums of the World’ (미국 크라운 출판사, 1967)



「간재집」에 소개된 귀갑선도



정조 때 발간된 『이충무공전서』(서울대 규장각 소장)

自舢欄至牌欄高四尺三寸牌欄左右各用十
 一版又龍舢欄鱗次相向而覆鱗其脊一尺五
 寸以便登桅樞樞設龜頭長四尺三寸廣三
 尺裏裏疏黃燭硝張口吐煙如霧以迷敵左右
 櫓各十左右牌各穿二十二破穴設十二門龜
 頭上穿二破穴下設二門門傍各有一破穴左
 右覆版又各穿十二破穴插龜字旗左右鋪版
 下屋各十二間二破穴插龜字旗左右鋪版
 夫槍劍十九間為軍兵休息之所左鋪版上屋
 一間船將居之右鋪版上屋一間將校居之

龜船之制版名聯十長六十四尺八寸頭
 廣十二尺腰廣十四尺五寸尾廣十尺六寸左
 右舢欄各聯七高七尺五寸最下第一版
 長六十八尺以次加長至最上第七版長一百
 十三尺並厚四寸舢欄各一舢欄四高四尺第二
 版左右穿字破穴各一舢欄四高四尺第二
 七尺五寸上廣十四尺五寸下廣十尺六寸第
 六版正中穿穴經一尺二寸插舵名聯七高
 設欄信名欄頭架橫梁名當欄前名駕牛
 馬之臆沿欄鋪版周遭植牌上又設欄

兵休則處鋪版下戰則登鋪版上納礮于象
 粧放不絕按忠武公行狀云公為全羅左水使
 知倭將擱創智作大船船上覆以版版上置十
 字細路以容人行悉以錐刀布之前龍頭後龜
 尾銳穴前後左右各六以放火丸遇賊則編茅
 覆上以掩錐刀而為先鋒賊欲登舢則離錐刀
 欲未掩則一時銳發所向莫不披靡大小戰以
 此收績者甚夥狀如伏龜故名龜船 皇朝華
 鉉海防議云朝鮮龜船布帆堅眠惟意風逆潮
 落亦可行即指公所創之船也然而並未詳言

其尺度今統制管龜船蓋出於忠武舊制而亦
 不無從而損益者公之創智制船實在於全羅
 左水營而今左水營龜船與統制管船制略有
 異同故付見其式于下

『이충무공전서』의 거북선 설명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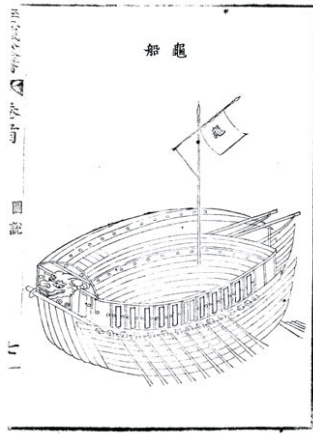
라는 책에 소개된 뉴욕선원박물관 소장의 거북선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 사진은 당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일부에서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일부 고서화 통해 거북선 외형 추정

한편 최근에 공개된 두 점의 그림이 거북선의 외형을 밝혀줄 수 있는 상세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2004년에 조선시대 거북선의 실물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서화가 미국의 한국인 기업가에 의해 공개됐는데, 소장자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서진무역 윤원영 사장이다. 이 그림은 가로 176cm, 세로 240cm의 비단천에 세부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용의 머리와 거북의 몸체 형태를 지닌 전신 4척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 거북선 위의 장대에서 회의중인 장수들과 판옥선 및 소형 선박에서 무기를 점검하는 병사들과 물건을 나르는 민간인들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 윤 사장은 평양 송실학교 교장을 역임한 미국인 선교사 데이비드 마우리의 손자 머느리로부터 2003년 1월 이 그림을 구입했는데, 구입 당시에 “1867년 일본 니가타현 인근의 성벽을 허물 때 발견된 그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지아대에서 탄소동위원소 측정 기법을 동원해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그림이 300~35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윤 사장의 설명대로라면 이는 임진왜란(1592~1598) 이후인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 사이 거북선을 비롯한 당시 군선과 수군 장병의 모습을 실재로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림에 묘사된 거북선은 전반적으로 보면 맨 앞과 가운데의 것은 통제영 거북선을 닮았고, 뒤의 두 개는 전라좌수영 거북



『이충무공전서』의 통제영거북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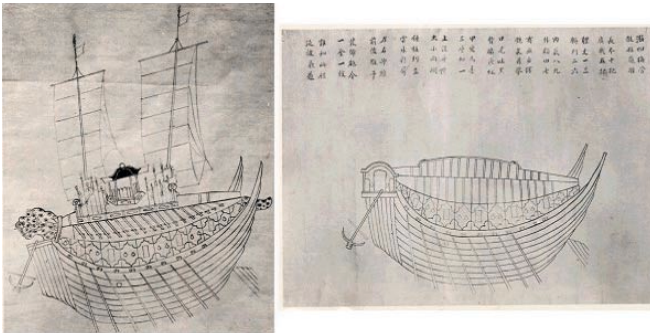
『이충무공전서』의 전라좌수영거북선 그림

선을 닮았다. 그렇지만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다. 또한 종래 생각한 것만큼 2층 구조를 갖출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덮여 있지 않고, 충분히 포를 장착하고 활을 쏠 수 있는 전투 공간을 마련할 만큼 높게 덮여있다. 게다가 판옥선과 같이 최상층에 장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맨 앞의 거북선에는 열여섯개의 문 안으로 대포를 장착하고 무언가 작업을 벌이는 전투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위치가 노를 젓는 공간의 위에 위치한 2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북선의 상부구조가 노를 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상하로 분리된 2층 구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학계 일각에서는 노와 화포가 한 층에 배치될 경우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거북선이 3층 구조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 그림으로 3층설 주장이 점차 탄력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제영 거북선과 유사한 형태의 거북선은 역시 2층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어쨌든 윤 사장이 공개한 그림이 실제로 16세기의 거북선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인지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더욱 세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도 측정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왼쪽 하단에 적혀있는 명문이 한치윤(1765~1814)이 말년에 쓴 '해동역사'의 거북선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의 내용이 그림과 동시에 써졌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적어도 '해동역사'가 간행된 이후(19세기)에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는 최초 사용했던 석채(광물성 물감)가 용머리, 방패, 깃발 등에 일부분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덧칠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 화풍, 색채 등이 일부 일본 화풍과 비슷한 점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1940년 전후에 그려진 그림으로 '조선전역해전도'란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타 덴요



이순신 중가에 전해오는 거북선 그림

(1884~1946)라는 일본의 역사화가로 역사적인 소재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려 수많은 박물관에 소장되는 등 일본에서는 유명한 화가다. 이 그림도 실제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해군 역사서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의 무용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선전화'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소간의 왜곡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림은 전투상황에 대한 묘사 내용이 매우 정밀하다. 이는 작가 자신이 역사에 대한 식견도 있었고,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일본측의 조선수군과 조선 선박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그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의 왼쪽에 등장하는 통제영 거북선과 유사한 형태의 거북선이다.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이순신이 건조했던 거북선의 모습을 다소나마 추정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포 및 방호력 강력한 돌격전함

거북선은 종래 조선의 군함인 판옥선이다 철판으로 마감된 덮개를 씌우고 용머리를 붙인 발명보다는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전함이다.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은 태종 때부터 존재하였던 거북선을 개량하여 본영과 방담진, 순천부의 선소에서 3척을 제작하였다. 이후 한산도로 진영을 옮긴 후 2척을 더 건조하여 조선 수군은 총 5척의 거북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북선이 대체로 판옥선에 지붕을 씌운 배라는 점, 거북선도 다른 많은 한국 전통 배와 마찬가지로 한국식 노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거북선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거북선의 구



조선후기에 삼도수군의 통합 훈련장면을 그린 조선수군조련도 병풍(전쟁기념관 소장)



뉴욕선원박물관에 소장된 거북선 사진

조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판옥선의 구조와 성능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판옥선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거북선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분의 '행록'에는 "크기는 판옥선과 같고, 위에는 판자로 덮였다. 판상에는 좁은 십자로를 만들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도추를 꽂아서 사방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였다.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그 아가리가 총구멍이 되게 하고,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만들어 붙이고 그 꼬리 아래 총구멍을 내었다. 좌우에 각각 6문의 총구멍을 내었는데, 그 전체의 모습이 대략 거북과 같으므로 그 이름을 거북선이라 하였다" 라고 거북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한편 '이충무공전서'에는 이순신이 건조한 거북선에 비롯된 통제영 거북선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① 저판(底版)은 10장을 이어 붙였는데, 길이가 1,964cm, 머리쪽 너비 364cm, 허리쪽 너비 440cm, 꼬리쪽 너비 326cm 이다.
- ② 좌우 현판(懸版)은 각각 7장씩 이어 붙였는데, 높이는 227cm, 맨 아래 제1판의 길이는 2,060cm 이며, 차례대로 길이를 더하여서 맨 위쪽의 제7판에 이르러서는 길이가 3,424cm 이고, 두께는 다같이 12cm 이다.



미국에서 공개된 거북선 그림(윤원영 소장)



3층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북선

- ③ 노판(櫓版)은 4장을 이어 붙였는데, 높이가 4자이고, 제2판 좌우에 현자포 구멍을 하나씩 뚫었다.
- ④ 축판(軸版)은 7장을 이어 붙였는데 높이가 227cm 이고, 위 너비는 440cm, 아래 너비는 326cm 이고, 제6판 한가운데 지름이

31cm 가량 되는 구멍을 뚫어 타(舵)를 꽂게 하였다.

⑤ 좌우 뱃전에는 속명을 난(欄: 信防)을 만들고, 난 머리에 속명을 횡랑(橫梁: 駕箭)을 건너질러 뱃머리 앞에 달게 하여, 소나말의 가슴에 멩을 씌운 것과 같았다. 난간을 따라 판자를 깔고 그 둘레에 패(牌)를 둘러 꽂았으며, 패 위에 또 난(欄: 信防)을 만들었는데, 뱃전 난간 위에서부터 패란(牌欄)까지 높이는 130cm이다.

⑥ 패란 좌우에 각각 귀배판(龜背版: 蓋版)이라 하는 11장의 판자를 비늘처럼 서로 마주 덮고, 그 등에 45.5cm 되는 틈을 내어 돛대를 세웠다 누었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⑦ 뱃머리에는 거북머리를 만들어 붙였는데, 길이는 130cm, 너비는 91cm며, 그 속에서 황 염초를 태워 벌어진 입으로 연기를 안개같이 토하여 적을 혼미하게 하였다.

⑧ 좌우의 노는 각각 10개씩이고, 좌우의 패에는 각각 22개씩의 포 구멍을 뚫었으며, 12개의 문을 만들었다.

⑨ 거북머리 위에도 2개의 포 구멍을 뚫었고, 그 아래에 2개의 문을 만들고 문 곁에도 포 구멍을 1개씩 두었다.

⑩ 좌우 복판(覆版)에도 또한 각각 12개의 포구멍을 뚫었으며, '귀'자 기를 꽂았다.

⑪ 좌우 포판(鋪版) 아랫방이 각각 12칸인데, 2칸은 철물을 간직하고, 3칸은 화포·궁시·창검을 간직하며, 19칸은 군사들의 휴식소로 하였다.



조선전역해전도에 나타난 거북선(일본 아오키 화랑 소장)

⑫ 왼쪽 포판 위의 방 한 칸은 선장이 거처하고, 오른쪽 포판 위의 방 한 칸은 장령들이 거처하였다.

⑬ 군사들이 쉴 때는 포판 아래 있고, 전투시에는 포판 위로 올라와서 포를 여러 구멍에 걸고 쉴 새 없이 쏜다고 하였다.

⑭ 전라좌수영 거북선에 대한 구조는 치수·길이·너비는 통제영 거북선과 같으나, 다만 거북머리 아래에 또 귀신머리(鬼頭)를 새겼으며, 복판 위에 거북 무늬를 그렸고, 좌우에 각각 2개의 문이 있으며, 거북 머리 아래에 2개의 포 구멍이 있고, 현판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 1개씩 있고, 현란 좌우에 각각 10개씩의, 복판 좌우에 각각 6개씩의 포 구멍이 있고, 좌우의 노는 각각 8개씩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이순신이 건조한 거북선의 외형은 전면에 용두가 있고, 거북선 좌우측에 각각 6문의 포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북선 상판 뒷개에는 +자형의 길이 나 있다. 내부 구조는 2층(3층)으로 되어있는데, 배 밑과 갑판 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1층에 창고, 선실 등이 있고, 갑판 위, 2층에는 선장실을 비롯하여 노군과 전투원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거북선에 덮개를 씌운 이유는 적선의 접근전에서 승무원 전원을 개판으로 뒤덮어서 보호하고, 또 쇠



거북선 그림 하단의 명문 부분



정조 때의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모델로 축소 재현한 거북선(전쟁기념관 소장)



한산도해전에서 거북선의 활약 장면을 그린 기록화(전쟁기념관 소장)

꼬챙이를 박아 놓음으로써 거북선에 오르는 적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었다. 지금까지 복원된 거북선은 모두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거북선의 전함으로서의 우수성을 든다면 내부 전투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화포 및 방호력의 강력함을 꼽을 수 있다. 거북선은 전투 개시 직후 적 함선 대열에 뛰어들어 돌격전을 함과 동시에 대포를 쏘아서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데 이를 위해서 거북선은 두터운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적의 침입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고자 개판을 씌우고 송곳을 꽂아 놓았다. 또 전후좌우에 14개의 화포가 장착되어 있어 적선에 포위된 상황하에서도 공격이 가능하였다. 특히 '난중일기'를 보면 거북머리의 입에 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면 화포 공격까지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개판에 철판이 씌워져 있어 방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선이 접근전을 펼쳐도 쉽게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북선이 맹렬히 돌진하여 닥치는 대로 포를 쏘고, 용두를 이용하여 당파전술을 펼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히 해상에서의 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북선 내부 구조 및 기능 등 논란 여전

지금까지 거북선에 관한 연구는 유물 발굴, 정확한 모양 및 기능의 규명과 복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자는 거북선이 침몰했으면 나무는 썩어 없어지고 철물은 부식돼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직까지는 비관적이다. 따라서 거북선에 관한 논의는 문헌 해석과 유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934

년에 언더우드가 최초로 거북선을 연구한 이래, 지금까지 최석남, 김재근, 남천우, 장학근, 이원식 등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 쟁점은 거북선이 목선인가 철선인가, 내부 구조는 2층인가 3층인가, 상륙용이나 돌격용이나, 용머리는 충돌용인가 화염 분사용인가, 용머리가 불박인가, 노의 위치와 노 젓는 방법, 전체 형태는 어떠한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지만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판옥선과 더불어 운용해 온 돌격전함이었고, 사천해전에서부터 투입되어 한산대첩, 부산해전 등의 해전에서 왜선을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 거북선들에는 천자총통·지자총통 등 대형 화포가 장착되어 막강한 화력을 구사하였고 이는 연승의 발판이 되었다. 이후 거북선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져 늘어나게 되었다. 숙종 때까지 5척이었던 거북선은 1746년(영조 22년)에는 14척으로 늘어나고, 1782년(정조 6년)에는 무려 40척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많이 전해오고 있는 조선 수군의 훈련장면을 그린 병풍류의 그림들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그 이후에는 거북선의 척수가 점차 줄어들어 1809년(순조 9년)에는 30척, 그리고 1817년에는 18척의 거북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고종 때까지 존재하였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관련 자료의 새로운 발굴을 기대해 본다.

이처럼 거북선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대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이후에도 판옥선 등의 대형 전함, 병선과 방선 등의 중형 전함과 함께 조선 수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던 것이다. ㉔